

# 베트남의 정치지형 급변에 따른 정치환경과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정재완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044-414-1051)



## 차 례

1. 최근의 정치지형 급변 과정과 배경
2. 정치환경 변화와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3.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3년 초부터 시작된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과 응우옌푸쫁 총비서의 사망은 베트남의 정치지형을 전례 없이 급변하게 만들었다.
  - 응우옌쑤언푹 제10대 국가주석(대통령), 보반트엉 제11대 국가주석, 브엉딩후에 국회의장, 쑤엥티마이 서기국상무 등 정치국원 7명이 불과 1년 반 사이에 사임하였고, 뒤이어 국가권력서열 1위인 응우옌푸쫁 공산당 총비서가 2024년 7월 19일 사망하였으며, 공안부장관 또림이 국가주석에 오르고 4명이 신규로 정치국원에 선임됨.
  - 총비서의 사망을 제외한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은 '당규 위반'으로 발표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임 또는 경질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데, 주요 배경으로는 △ 응우옌푸쫁 총비서와 또림 당시 공안부장관이 주도한 반부패 캠페인, △ 당내 권력다툼 또는 파벌싸움, △ 최근 도입된 사퇴문화 등을 들 수 있음.
- ▶ 최근의 이러한 변화는 베트남의 정치지형과 정치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표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 수호와 공산당 역할 강조, 반부패 캠페인의 지속과 사퇴문화 정착, 또림 국가주석의 경쟁력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또림 국가주석은 총비서 임시대행을 통해 당 최고 영도기관과 최고정책결정기관을 통솔하게 됨과 동시에 정치적 라이벌들이 대거 물러남에 따라 차기 총비서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짐.
- ▶ 정치지형 급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나 △ 체제 강화 추진, △ 경제정책의 추동력 약화와 비즈니스 환경 악화, △ 상대적인 친중정책 추진 등도 예상됨.
  - 무엇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창안자가 사망하고 과학이나 경제 전문가가 정치국에서 대거 물러났다는 점은 베트남 정책수립 과정에서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 변동이나 추진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부 내 의사결정 공백, 인허가 지연,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 지연 등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 한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베트남에 대해 모든 시나리오를 점검함과 동시에 '포스트 응우옌푸쫁'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호찌민 사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응우옌푸쫁 총비서의 사망이 주는 의미와 그의 사후 펼쳐질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더해 최근 나타난 정치국원의 잇따른 사임과 그로 인한 정치지형 급변, 더 나아가 '포스트 응우옌푸쫁'을 향한 권력투쟁이나 파벌싸움과 2026년 1월 개최될 제14차 전당대회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국이자 글로벌 공급망 및 외교안보의 핵심 파트너인 점을 고려해 최근의 정치적 격변으로 인한 정책변화 가능성과 양국 간 경협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1. 최근의 정치지형 급변 과정과 배경

## 가. 최근의 정치지형 급변 과정

■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해 정치적 안정성을 자랑하던 베트남에서 최근 최고지도부(국가권력서열 1~4위로 구성)와 공산당 정치국원(politburo member, 최고지도부 포함 국가권력서열 1~18위로 구성)이 연이어 사임하는 상황이 발생함.

- 출발은 2023년 1월 팜빙밍(Pham Binh Minh, 권력서열 6위)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이 물러나고 2월에는 응우옌쑤언푹(Nguyen Xuan Phuc, 권력서열 2위) 국가주석(대통령)이 사임하면서 시작됨.
- 2024년 들어서는 응우옌쑤언푹에 이어 새로 국가주석에 오른 보반트엉(Vo Van Thuong, 권력서열 2위)이 재임 1년 만인 2024년 3월 사임한 데 이어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국원 4명이 추가로 퇴임하는 상황이 전개됨(표 1 참고).
  - o 이에 앞선 2024년 1월에는 쩌뚜언아잉(Tran Tuan Anh, 권력서열 12위) 공산당 중앙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함.
  - o 2024년 5월에는 당시 권력서열 4위인 브엉딩후에(Vuong Dinh Hue) 국회의장과 권력서열 5위인 쩌엉티마이(Truong Thi Mai) 서기국상무 겸 중앙인민동원위원장이 물러났으며, 6월에는 덩띠엔중(Dinh Tien Dung, 권력서열 15위) 하노이시 당서기가 사임함.
- 정치국원 외에도 2023년 1월 당시 부총리였던 부득담(Vu Duc Dam)도 퇴임함.

■ 베트남 공산당은 2024년 5월 제9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주석에 또람(To Lam) 공안부장관 겸 대장, 국회의장에 쩌타잉만(Tran Thanh Man) 국회부의장, 당 서기국상무에 르엉꾸엥(Luong Cuong) 인민군 대장을 각각 임명함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국원 4명을 선임함(표 1 참고).

- 새로운 정치국원으로는 당 중앙조직위원장 겸 중앙관방장관에 레밍흥(Le Minn Hung), 중앙선전교육위원장에 응우옌쑤응이아(Nguyen Trong Nghia), 중앙인민동원위원장에 브이티밍호아이(Bui Thi Minh Hoai), 조국전선중앙위원장에 도반치엔(Do Van Chien)을 각각 임명함.

■ 여기에 더해 그동안 와병설이 나돌던 응우옌푸퐁(Nguyen Phu Trong) 총비서(권력서열 1위)가 2024년 7월 19일 사망함에 따라 베트남의 정치지형은 더욱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응우옌푸퐁은 2011년부터 총비서로 군림하면서 호찌민(Ho Chi Minh) 이후 최장수 총비서이자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베트남을 13년간 통치했고, 특히 최근 10여 년간은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음.
- 2024년 5월 국가주석으로 선임된 또람이 총비서 역할을 임시로 대행하는 가운데 공산당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의 구성원은 18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듦.<sup>1)</sup>

표 1. 베트남의 제13기(2021~25) 정치국원 변동 내역(2024년 7월 기준)

서열	이름	직책	성별	출생연도	출생지역	재임/신임	비고/선임 시기
(1)	Nguyen Phu Trong	총비서	남	1944	북부 하노이시	재임(6기)	사망
(2)	Nguyen Xuan Phuc	국가주석	남	1954	중부 팡남성	재임(3기)	사임
(2)	Vo Van Thuong	국가주석	남	1970	남부 빈롱성	재임(2기)	사임
2	To Lam	국가주석(2024년 7월 18일부터 총비서 대행)	남	1957	북부 흥옌성	재임(2기)	
3	Pham Minh Chinh	총리	남	1958	중부 타인호아성	재임(2기)	
(4)	Vuong Dinh Hue	국회의장	남	1957	중부 응에안성	재임(2기)	사임
4	Tran Thanh Man	국회의장	남	1962	남부 하우장성	신임	2021. 1.
(5)	Truong Thi Mai	서기국상무 겸 중앙인민동원위원장	여	1958	중부 팡빈성	재임(2기)	사임
5	Luong Cuong	서기국상무	남	1957	북부 푸토성	신임	2021. 1.
(6)	Pham Binh Minh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	남	1959	북부 남딘성	재임(2기)	사임
6	Tran Cam Tu	중앙검찰위원장	남	1961	중부 하띤성	신임	2021. 1.
7	Phan Dinh Trac	중앙사정위원장	남	1958	중부 응에안성	신임	2021. 1.
8	Le Minh Hung	중앙조직위원장 겸 중앙관방장관	남	1970	중부 하띤성	신임	2024. 5.
9	Nguyen Trong Nghia	중앙선전교육위원장	남	1962	남부 띠엔장성	신임	2024. 5.
10	Bui Thi Minh Hoai	중앙인민동원위원장	여	1965	북부 하남성	신임	2024. 5.
11	Do Van Chien	조국전선중앙위원장	남	1962	북부 투옌팡성	신임	2024. 5.
(12)	Tran Tuan Anh	중앙경제위원장	남	1964	중부 팡가이성	신임	사임
12	Phan Van Giang	국방부장관	남	1960	북부 타이응우옌성	신임	2021. 1.
13	Nguyen Hoa Binh	최고인민재판소장관	남	1958	중부 팡가이성	신임	2021. 1.
14	Nguyen Xuan Thang	호찌민국가정치아카데미원장 겸 중앙이론평의회 의장	남	1957	중부 응에안성	신임	2021. 1.
(15)	Dinh Tien Dung	하노이시 당서기	남	1961	북부 닌빈성	신임	사임
16	Nguyen Van Nen	호찌민시 당서기	남	1957	남부 타이닝성	신임	2021. 1.

주: 서열은 2024년 6월 기준.

자료: 萩原遼太郎(2024. 5. 24.), 「共産党指導部の序列5位が辞任、党則違反に問われる」, ジェトロの海外ニュース, <https://www.jetro.go.jp/biznews/2024/05/4f202bcd9d28d2a5.html>(검색일: 2024. 7. 10.)를 토대로 재작성 및 수정.

■ 최고지도부와 정치국원 7명이 연이어 사퇴하거나 교체되고 총비서가 결위되는 현상장은 베트남 공산당 역사상 최초인 데다가, 총비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식적인 사임 사유가 ‘당규 위반(party rule violation)’으로 보도됨.

- 특히 전당대회도 개최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최고지도부의 잇따른 사임은 전대미문으로 기록되고 있음.
  - 공산당이 유일 정당인 베트남에서 최고지도부는 공산당 총비서를 비롯해 국가주석, 총리, 국회의장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통상적으로 정치국 내에서도 권력서열 1~4위를 차지함.
- 더욱이 이번에 사임한 7명의 정치국원은 대부분 본인이 사임을 요청하고 당이 수용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으나, 사임 사유가 대부분 당규 위반으로 발표됨.

1) 당초 제13차 전당대회를 통해 18명으로 출발한 정치국원은 2023년 초부터 2024년 5월까지 6명이 사임하였으나 2024년 5월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4명이 선임되어 16명으로 줄어들었고, 2024년 6월과 7월 덩띠엔중 하노이시 당서기와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각각 사임 및 사망함에 따라 2024년 7월 기준 14명으로 축소됨.

-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대부분 사임사유를 부정부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의 사임은 해임(dismissal) 또는 경질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최근 사임한 정치국원은 모두 '당규 위반'으로 적시되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나. 정치지형 급변의 배경

■ 총비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을 제외한 최근 베트남 정치지형 급변의 첫 번째 배경으로는 응우옌푸쫑 총비서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하던 반(反)부패 캠페인을 들 수 있음.

- 베트남에서 부정부패 단속은 2003년 UN 부패방지조약(UNCAC) 가입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나, 응우옌푸쫑 총비서가 2016년부터 '불타는 용광로(blazing furnace)'를 슬로건으로 부정부패 방지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본격화됨.
  - 반부패 캠페인은 당 기강을 숙정(肅正)하고 국민의 당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됨.
  -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취임 초기에는 응우옌땐중(Nguyen Tan Dung) 당시 총리의 「2020년까지의 부패방지전략」(2009년 수립)을 계승하는 데 그쳤으나, 두 번째 총비서 임기를 시작한 2016년부터는 전 공산당 간부의 처분을 포함하여 성역 없는 반부패 캠페인을 강력하게 추진함.<sup>2)</sup>
  -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반부패 캠페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부패방지법(36/2018/QH14)」과 「고발법(25/2018/QH14)」을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산당 문헌(공산당 규약, 전당대회 결의, 중앙집행위 규정과 결의, 정치국 규정과 지시 등)을 작성함.
  - 특히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2005년 「부패방지법」에 따라 총리 직속의 정부기관으로 설립된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를 2013년 2월부터 총비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조직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 역시 또렷을 위시한 공안과 경찰 출신 정치국원과 서기국원 중심으로 개편함.<sup>3)</sup>
- 총비서 주도의 반부패 캠페인은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까지 고소득국가 진입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수 많은 부정부패 사건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움에 따라 베트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짐.<sup>4)</sup>
  - 공산당은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당내에서 1만 7,000여 건의 부정부패 및 직위남용 사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최근까지 중앙집행위원 40명과 장군(군과 경찰) 50명을 포함하여 13만 9,000명의 당원을 징계한 것으로 알려짐.<sup>5)</sup>
  - 최근 사임한 7명의 정치국원 역시 직간접적으로 부정부패와 연관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2) 河野龍三(2024), 「ベトナム共産党による汚職防止の取組み: 党の規律施行と刑事手続の二重構造」, ICD News No. 98, pp. 10~11, Ministry of Justice(Japan).

3) 위의 자료, pp. 19~20.

4) 이는 1945년 9월 호찌민(Ho Chi Minh)이 베트남 독립을 선포한 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임.

5) David Brown(2024. 6. 21.), "To Lam's ambitious ascent in Vietnam," <https://eastasiaforum.org/2024/06/21/to-lams-ambitious-ascent-in-vietnam/>(검색일: 2024. 7. 10.); Le Hong Hiep, Nguyen Khac Giang(2024. 7. 19.), "Nguyen Phu Trong's Incomplete Legacy in Vietnam," <https://fulcrum.sg/nguyen-phu-trongs-incomplete-legacy-in-vietnam/>(검색일: 2024. 7. 21.).

■ 베트남의 반부패 캠페인은 당초 목적 달성과 별개로 총비서 중심의 통치 강화와 권력투쟁으로도 전개되었고, 특히 2026년 1월 개최되는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권력다툼이나 파벌싸움의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근 정치지형 급변의 두 번째 배경인 것으로 분석됨.

- 전통적으로 베트남 내에서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지도부를 비롯한 정치국원이나 서기국원이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짐.
-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응우옌푸쫁 총비서의 2026년 전당대회 불출마가 예상됨에 따라 차기 총비서를 향한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최근 10여 년간 반부패 캠페인의 선봉장 역할을 해온 또렘 국가주석이 차기 총비서 후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였음.
  - 최근 사임한 7명의 정치국원 중 응우옌쑤언푹 전 국가주석은 경제개혁의 선두주자로, 또 보반트영 전 국가주석은 세대교체의 책임자이자 응우옌푸쫁 총비서의 총애를 받은 인물로 알려졌으나, 모두 당규 위반으로 후보 경쟁에서 낙마함.
  - 또한 쑤잉티마이는 여성 최초로 서기국상무를 역임하였으나, 역시 당규 위반으로 총비서 후보 경쟁에서 밀려남.
- 브영딘후에 전 국회의장의 경우 중부지방 출신의 정치세력인 응에안파(Nghe An Clique)의 일원이었으나, 총비서 후보 경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짐.<sup>6)</sup>

■ 최근에 나타나는 정치국원의 연이은 사임은 '사퇴문화'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응우옌푸쫁 총비서를 비롯한 최고지도부는 비리 연루 등으로 위신이 실추된 간부에 대해 임기도중이라도 자진 사퇴할 것을 장려해온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최고지도부는 2021년 11월의 중앙집행위원회 규정 41호(41-QD/TW)에 '기관이나 단위의 장은 관할 조직에서 중대한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함은 물론, 2022년 9월의 정치국통지 20호(20-TB/TW)를 통해서도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고위 간부의 경우 사임을 장려하되 사임하지 않을 경우 면직될 수도 있음을 강조함.<sup>7)</sup>
  - 응우옌쑤언푹과 보반트영 전 국가주석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 규정 41호(41-QD/TW)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무엇보다 2011년 이후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응우옌푸쫁 총비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베트남의 정치지형을 더욱 크게 흔들고 있으며, 특히 후계구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는 배경이 됨.

- 그동안 응우옌푸쫁 총비서가 구축한 강력한 리더십과 의사결정권의 집중화는 그의 사망 후 역설적으로 후계구도 불안과 리더십 공백으로 나타나 베트남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음.

6) Yuji Nitta(2024. 4. 28.), "Vietnam's top ousters leave Hanoi rudderless on economy," <https://asia.nikkei.com/Politics/Vietnam-s-top-ousters-leave-Hanoi-rudderless-on-economy>(검색일: 2024. 7. 10.).

7) 石塚二葉(2023), 「ベトナム国家主席辞任劇にみる反汚職闘争の論理」, 『世界を見る眼』, p. 3; アジア経済研究所; 河野龍三(2024), p. 14.

- 2024년 7월 18일 이후 총비서직을 임시로 대행하고 있는 또렘 국가주석 역시 반부패 캠페인의 선두에 선 인물로 강력한 차기 총비서 후보이지만, 2026년 1월 개최되는 제14차 공산당 전당대회까지 팜밍쩡 총리 등과의 총비서 경쟁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도 있음.

## 2. 정치환경 변화와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 가. 정치지형 및 환경 변화 전망

- 최근 급변하는 베트남의 정치지형은 공산당 일당지배국가 베트남을 사회주의 체제 수호와 공산당 역할 강화를 더욱 강조하는 국가로 이끌 수도 있을 전망이다.
-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경제개혁보다는 체제생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과 동시에 최고지도부 선임에 대한 일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함.<sup>8)</sup>
- 차기 총비서 역시 보수 성향의 공안 또는 군 출신이 차지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제11차 전당대회(2011년) 이후 응우옌편중과 응우옌쑤언푹 등의 시장개혁주의자들은 줄줄이 탈락함.
- 더욱이 공안 정국의 지속, 특히 제도를 통한 통제와 규제가 강화되는 경찰국가(police state)의 등장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또렘은 2024년 5월 국가주석(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 당이 제시한 정책과 지침을 철저히 실행할 것을 강조함.<sup>9)</sup>
  - 응우옌푸쫑 총비서와 또렘 국가주석은 그동안 공안업무를 공산당으로 이관하고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안부 예산 증액, 시민사회를 정권의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규정(2016년 당 결의안), 당의 이념적 기반 보호를 위한 의무 확대(2018년 당 결의안), 비영리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외국인의 금융활동 규제 강화(2020), 「보안 및 질서유지법」 제정(2023년) 등을 추진함.<sup>10)</sup>
  - 게다가 베트남 정부는 언론 통제를 계속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sup>11)</sup> 최근에는 언론과 인터넷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률도 제정함.

8) 당시 응우옌푸쫑 총비서는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 주요 원인은 잘못된 지도자(고르바초프)가 선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함. Yuji Nitta(2024. 4. 28.), “Vietnam’s top ousters leave Hanoi rudderless on economy,” <https://asia.nikkei.com/Politics/Vietnam-s-top-ousters-leave-Hanoi-rudderless-on-economy>(검색일: 2024. 7. 10.).

9) 또렘 국가주석의 취임연설문(Toàn văn Phát biểu Nhân chức Chủ tịch nước của Đồng chí Tô Lâm, 2024. 5. 22.), <https://special.nhandan.vn/toan-van-bai-phat-bieu-nham-chuc-cua-dong-chi-To-Lam/index.html>(검색일: 2024. 7. 12.).

10) Nhu Truong(2024. 5. 28.), “Vietnam’s leadership upheaval signals regime’s security focus,” <https://asia.nikkei.com/Opinion/Vietnam-s-leadership-upheaval-signals-regime-s-security-focus>(검색일: 2024. 7. 11.).

11) 베트남 감시 단체인 ‘프로젝트 88(Project 88)’에 의하면 응우옌푸쫑 총비서 집권 이후 베트남에서 환경운동가, 언론인, 노동조합원 등 약 200명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됨. Brian Murphy(2024. 7. 19.), “Nguyen Phu Trong, who led Vietnam’s outreach and crackdowns, dies at 80,” <https://www.washingtonpost.com/obituaries/2024/07/19/nguyen-phu-trong-vietnam-dies/>(검색일: 2024. 7. 21.).

■ 정치지형의 급변에도 불구하고 반부패 캠페인은 향후에도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따른 '사퇴문화' 역시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최근 10년간 부패 척결을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구축을 지속해 왔으며, 특히 공산당 결의안을 통해 최소 2030년까지 반부패 캠페인을 지속할 것을 천명한 바 있음.<sup>12)</sup>
  - 심지어 응우옌푸쥁 총비서는 2045년까지 반부패 캠페인을 추진할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공산당 최고의 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2024년 7월 기준 14명으로 구성)은 이미 또렘을 포함한 8명의 공안 및 경찰 출신이 장악했고, 신임 공안부 장관과 당 중앙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또렘의 부관 출신이 임명됨에 따라 반부패 캠페인은 지속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렘은 취임 연설문에서 특별히 핵심 당원의 도덕성, 책임감, 임무 완수 등을 강조함.
  - 2024년 6월 임명된 르엉탐꽁(Luong Tam Quang) 공안부 장관과 응우옌두이응옥(Nguyen Duy Ngoc) 중앙위 사무처장은 모두 또렘과 같은 흥옌(Hung Yen)성과 공안부 출신인 데다가 그동안 반부패 캠페인을 앞장서서 추진한 인물임.<sup>13)</sup>
- 응우옌푸쥁 총비서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사퇴문화'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발생한 두 개의 대형 부패사건과 최근 나타난 일련의 정치국원 사임을 거치면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발생한 간이검사 키트 개발·판매와 특별항공권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사건은 당시 두 명의 부총리를 관리감독 부실의 명목으로 사임(2022년 12월과 2023년 1월)하게 했고, 같은 맥락에서 당시 총리였던 응우옌쑤언푹의 사임(정부 총괄 책임)으로도 연결됨.<sup>14)</sup>
  - 응우옌푸쥁 총비서가 '사퇴문화'를 추진한 목적은 △ 간부의 도의적 책임을 통해 리더로서의 모범을 보임과 동시에 당의 체면을 유지한다는 것과 △ 복잡하고 민감한 부패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었음.<sup>15)</sup>

■ 반부패 캠페인에 앞장섰던 또렘은 정치국원의 잇따른 사임 이후 국가주석에 등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응우옌푸쥁 총비서의 사망으로 베트남 내 최고 권력실세로 급부상하였으며, 2026년 1월 전당대회를 겨냥한 차기 총비서 경쟁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으로 보임.

- 또렘은 2024년 5월 국가권력서열 2위인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응우옌푸쥁 총비서 사망(2024년 7월 19일)으로 당분간 공산당의 최고 영도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와 당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을 총괄하게 됨.
- 게다가 최근 주요 정치국원 중 차기 총비서 후보 경쟁자들이 대부분 사임함에 따라 또렘이 2026년 전당대회에서 벌어질 총비서 경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12) Nhu Truong(2024. 5. 28.), "Vietnam's leadership upheaval signals regime's security focus," <https://asia.nikkei.com/Opinion/Vietnam-s-leadership-upheaval-signals-regime-s-security-focus>(검색일: 2024. 7. 11.).

13) David Brown(2024. 6. 21.), "To Lam's ambitious ascent in Vietnam," <https://eastasiaforum.org/2024/06/21/to-lams-ambitious-ascent-in-vietnam/>(검색일: 2024. 7. 10.).

14) 庄司智孝(2024. 7. 2.), 「ベトナムの内政と外交: 政治指導部の相次ぐ辞任と対外政策への影響」, IINA国際情報ネットワーク分析, 笹川平和財団, [https://www.spf.org/iina/articles/shoji\\_26.html](https://www.spf.org/iina/articles/shoji_26.html)(검색일: 2024. 7. 9.).

15) 石塚二葉(2023), 「ベトナム国家主席辞任劇にみる反汚職闘争の論理」, 『世界を見る眼』, p. 3, アジア経済研究所, 河野龍三(2024), p. 14.

- 공산당은 최고지도부(권력서열 1~4위)와 서기국상무(권력서열 5위)의 자격조건으로 '정치국원 1기(5년) 이상 복무, 고도의 정치이론 습득, 당 집행부 지도 능력' 등을 규정함에 따라 이들 조건을 모두 갖춘 응우옌쑤언푹 전 국가주석, 보반트엉 전 국가주석, 브엉딩후에 전 국회의장, 쑤잉티마이 전 서기국상무 등이 총비서 후보 물망에 올랐으나, 모두 최근에 사임함.<sup>16)</sup>
- 2024년 7월 현재 또렘 국가주석의 유일한 경쟁자로서는 팜밍징 총리가 거론되고 있음.<sup>17)</sup>
- 국가주석 겸 총비서 임시대행인 또렘이 차기 총비서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일부에서는 한계와 우려 사항이 제기되기도 함.
  - 반부패 운동 추진을 통해 응우옌푸쥑 총비서의 최측근 역할 수행, 전통적으로 총비서를 독식하고 있는 북부지역 출신, 정치국과 서기국 내 반 이상을 점령한 공안세력을 통한 강력한 입지 구축, 주요 경쟁자의 연이은 사임 등이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음.
  - 반면 역대 총비서 중에는 공안 출신이 없다는 점, 공안정국 지속이나 강화에 대한 우려(반부패 캠페인의 행동대장이자 최대수혜자)로 많은 중앙집행위원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sup>18)</sup> 새롭게 합류한 정치국원은 모두 또렘과 인연이 없다는 점 등도 제기되고 있음.<sup>19)</sup>
- 다만 서기국상무(권력서열 5위)로 임명된 르엉꾸엥 인민군 대장을 비롯한 군부가 정치국 내 공안의 역할 확대를 일정 부분 제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20)</sup>
  - 총비서는 중앙집행위원과 정치국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인 데 반해 또렘 국가주석의 경우 신임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군부의 협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함.<sup>21)</sup>

## 나. 대내외 정책방향 전망

■ 응우옌푸쥑 총비서 사임을 비롯한 최근의 정치지형 급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정책 선회 가능성은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체제 강화 및 보수화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의 결정 시스템이 견고하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 선회 가능성은 낮으며, 과거 최고지도부의 노선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책노선은 대부분 지속되어 온 사례도 있음(표 2 참고).

16) 베트남 공산당은 정치국원의 재임에 대해 나이 규정(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나 총비서의 경우 1차례에 한해 예외 인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 응우옌푸쥑은 두 번, 응우옌쑤언푹은 한 번 예외를 인정받은 바 있음. 이윤범(2021), 「제13차 베트남공산당 전당대회 결과 분석과 전망: 제도의 후퇴와 공산당 지배력 강화」, EMERICs 전문가 오피니언, pp. 3~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7) 萩原遼太郎(2024. 5. 24.), 「共産党指導部の序列5位が辞任、党則違反に問われる」, 『海外ビジネス情報』,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24/05/4f202bcd9d28d2a5.html>(검색일: 2024. 7. 8.).

18) 베트남 정치국원의 권력서열은 통상적으로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득표수로 정해지고 있으나, 반드시 특정 직급순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님.

19) Sui-Lee Wee(2024. 5. 21.), "Power Struggle in Vietnam Brings Third President in Less Than 2 Year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4/05/21/world/asia/vietnam-presidentlam.html>(검색일: 2024. 7. 8.).

20) 萩原遼太郎(2024. 5. 24.), 「国家主席にラム公安相、国会議長にマン国会副議長が昇格」, 『海外ビジネス情報』, JETRO, <https://www.jetro.go.jp/biznews/2024/05/f83deac9ea2fe233.html>(검색일: 2024. 7. 9.).

21) 이한우(2024. 5. 20.), 「정치국 위원 3분의 1 물갈이... 베트남 정가 '격변의 5월」, 『아주경제』.

표 2. 베트남의 역대 최고지도부(트로이카) 비교(2024년 7월 기준)

선출시기	공산당 총비서			대통령(주석)			총리		
	이름	출신	성향	이름	출신	성향	이름	출신	성향
1991~92년	도므어이	북부	중도	레득아잉	중부	보수	보반키엣	남부	개혁
1997년	레카푸	북부	보수	쩨득루옹	중부	중도	판반카이	남부	개혁
2001년	농득마잉	북부	개혁	쩨득루옹	중부	중도	판반카이	남부	개혁
2006년	농득마잉	북부	개혁	응우옌민찌엣	남부	개혁	응우옌떤중	남부	개혁
2011년	응우옌푸쑹	북부	사회주의 이론가 (중도보수)	쯔엥떤상	남부	개혁	응우옌떤중	남부	개혁
2016년	응우옌푸쑹	북부	사회주의 이론가 (중도보수)	쩨다이꽁	북부	중도	응우옌쑤언푹	중부	개혁
				응우옌푸쑹 겸임(2018~20년)					
2021년	응우옌푸쑹	북부	사회주의 이론가 (중도보수)	응우옌쑤언푹	중부	개혁	팜밍짱	중부	중도
				보반트엥(2023. 2.~204. 3.)	남부	보수 (이론가)			
	또림 대행 (2024. 7. 18.)	북부	보수	또림(2024. 5.)	북부	보수			

자료: 정재완(2016),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특징과 향후 정치·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12, p. 5 수정·보완.

- 다만 최고의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베트남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창안하고 ‘대나무 외교(Bamboo Diplomacy)’를 실현한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사망하고 정치국을 보수파, 특히 공안과 군 출신이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나 경제 전문가가 대거 이탈한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중장기 정책이나 전략의 일부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음.
- o 2024년 6월까지 사임한 정치국원 7명 중 5명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였고, 14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정치국원은 공안 5명, 경찰 3명, 당 관계자 4명인 데 반해 테크노크라트는 2명에 불과함.
- o 시장경제개혁 주도자였던 응우옌떤중 전 총리 사임 이후 공안 정국이 강화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임.
- o 특히 2026년 전당대회에서는 ‘2021~2030 사회경제개발전략(SEDS)’의 전반기와 ‘제13차(2021~2025) 사회경제개발계획(SEDP)’을 평가하는 ‘정치경제보고서’와 새롭게 수립하는 ‘제14차(2026-2030) SEDP’에는 최근의 정치지형이나 정치환경 변화를 반영해 중점 정책이나 전략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 게다가 당분간은 인사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거나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으로 정책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베트남식 사회주의 시장경제 창안자가 사망하고 과학기술이나 경제 전문가가 대거 정치국에서 이탈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베트남의 주요 경제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거나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고, 비즈니스 환경 또한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최고정책결정기관인 정치국의 현재 인적 구성의 기본 구조는 2026년 1월의 전당대회를 통한 최고지도부와 정치국의 인적 구성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베트남 정부가 경제성장보다는 체제지속이나 부패 청산을 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거나 경제 분야에서도 성장보다 분배를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응우옌푸쑹이 사망함에 따라 베트남식 경제개혁도 증장기적으로 국유기업 개혁, 소득분배, 지역 균형개발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음.
  - o 응우옌푸쑹은 평소 국유기업 중심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반면 또렘 국가주석이나 공산당이 강조하는 '통제와 규제 강화'는 시민사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음.
  - o 당이나 정부 내 의사결정 지연이나 인허가 관련 업무 기피,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지연 등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외자기업의 경우 신규 사업에 관련되는 판단을 주저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려짐.<sup>22)</sup>
- 특히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혁신 등으로 세계경제 흐름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이 급변하는 데 반해 베트남의 향후 정책에서 경제나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음.
  - o 또렘 국가주석의 성향이나 공산 정국 분위기를 감안하면 향후 베트남이 추진하는 정책에서는 특히 환경 보호나 기후변화, 디지털이나 기술 발전, 혁신 등의 우선 순위가 밀릴 수도 있을 것임.<sup>23)</sup>
  - o 베트남 정부의 정책 추진과는 별개로 외국인투자자나 서방이 느끼는 정치적 불안감이나 정책의 불완전성이 커질 수도 있음.

■ 총비서 사망이나 정치국원의 대거 교체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대외정책은 기본전략인 '대나무 외교'를 견지할 것으로 전망되나, 상대적으로 친중적인 외교정책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음.

- 당초 친중파로 알려졌던 응우옌푸쑹 총비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다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미국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 및 인도 등과도 외교관계를 활발히 추진함.
  - o 응우옌푸쑹 총비서는 실제 대나무 외교를 실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sup>24)</sup>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총비서로서는 최초로 미국을 방문(2015년 7월)한 바 있음.
  - o 베트남은 최근 1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은 물론 러시아 정상이 모두 방문한 유일한 국가임.
- 이러한 기초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베트남은 중국과 같이 공산당이 영도하는 국가이고 또렘 국가주석을 비롯한 공안파가 주도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친중 성향의 외교정책이 추진될 수도 있음.
  - o 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EU 등과 사이에서 실리를 우선적으로 추구해온 베트남의 외교전략이 응우옌푸쑹 총비서 사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o 또렘 국가주석의 시민운동 및 인권 탄압과 언론 통제 등의 전례나 정책은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sup>25)</sup>

22) 西濱徹(2024. 7. 22.), 「ベトナム・チョン党書記長が逝去、政治安定下で権力移譲が進むか」, *Asia Trends*, p. 2,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3) Nhu Truong(2024. 5. 28.), "Vietnam's leadership upheaval signals regime's security focus," <https://asia.nikkei.com/Opinion/Vietnam-s-leadership-upheaval-signals-regime-s-security-focus>(검색일: 2024. 7. 11.).

24) Brian Murphy(2024. 7. 19.), "Nguyen Phu Trong, who led Vietnam's outreach and crackdowns, dies at 80," <https://www.washingtonpost.com/obituaries/2024/07/19/nguyen-phu-trong-vietnam-dies-at-80/>(검색일: 2024. 7. 21.).

25) Elaine Pearson(2024. 6. 19.), "Beware of Vietnam's New Authoritarian President,"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24/6/19/beware-of-vietnams-new-authoritarian-president>(검색일: 2024. 7. 12.).

### 3. 시사점

■ 한국은 총비서 사망과 정치국원의 잇따른 사임 등으로 전례 없는 정치적 변화를 겪고 있는 베트남의 정치지형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점검하고, 특히 ‘포스트 응우옌푸쑹’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대표적인 사회주의 이론가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 창안자이고 대나무 외교 실현가인 응우옌푸쑹 총비서 사망의 의미와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응우옌푸쑹은 최고지도부로 입성한 이후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당내 사상, 문화, 과학교육, 이론학 등의 교육을 담당해 온 것으로 알려짐.<sup>26)</sup>
- 응우옌푸쑹 총비서가 베트남에서 호찌민 사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데다가 후계구도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반부패 캠페인과 권력집중화를 추구하면서 정치적 라이벌을 대거 탈락시킨 만큼, 향후 베트남에서는 ‘포스트 응우옌푸쑹’ 시대를 위한 권력 및 파벌 싸움이 치열해질 수 있음.
  - 특히 당 내 기강을 확립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추진한 반부패 캠페인은 역설적으로 당내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균형은 물론 경력이나 출신지를 배경으로 한 파벌 간 균형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고,<sup>27)</sup> 이는 결국 또렘 국가주석을 위시한 공안파와 군부의 득세 및 테크노크라트와 젊은 세대의 몰락을 가져옴.
- 2024년 5월 또렘의 국가주석 등극으로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견되었던 차기 총비서를 향한 경쟁은 응우옌푸쑹 총비서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다시 불확성이 높아진바, 특히 권력이양 과정과 결과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현재로서는 국가주석과 총비서직 대행을 겸직하고 있는 또렘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총비서를 포함한 최고지도자 선출은 비밀스러운 과정이고 권력서열 1위인 총비서가 공식인 상황인바, 정치국과 중앙집행위원회 내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도 있음.<sup>28)</sup>
  - 이 과정에서 △ 새로운 총비서 임명 혹은 2026년 전당대회까지 총비서 대행 지속 여부, △ 또렘이 총비서로 선출될 경우 국가주석 겸직 여부, △ 2026년 전당대회까지 권력투쟁 지속 등이 최대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임.<sup>29)</sup>

■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한 데다가 최근에는 공급망과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중점 파트너로 부상한 만큼, 베트남의 최근 정치지형 급변이 주는 의미와 대내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벌어지는 베트남의 정치환경 급변과 제14차 전당대회까지의 정치환경 변화는 필연적으로 베트남의

26) 西濱徹(2024. 7. 22.), 「ベトナム・チョン党書記長が逝去、政治安定下で権力移譲が進むか」, *Asia Trends*, p. 1,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7) 위의 자료, p. 1.

28) John Boudreau, Nguyen Dieu Tu Uyen, and Nguyen Xuan Quynh(2024. 7. 20.), “Vietnam’s Most Powerful Leader, Party Chief Trong, Die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9/vietnam-s-most-powerful-leader-party-chief-trong-dies-at-80?sref=QbgqEltZ>(검색일: 2024. 7. 21.).

29) Le Hong Hiep, Nguyen Khac Giang(2024. 7. 19.), “Nguyen Phu Trong’s Incomplete Legacy in Vietnam,” <https://fulcrum.sg/nguyen-phu-trongs-incomplete-legacy-in-vietnam/>(검색일: 2024. 7. 21.).

대내외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베트남의 정책변화가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도 있음.
- o 미중 전략경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수혜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정치적 안정성이 무너지면 베트남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음.

■ 베트남에서 5년마다 개최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는 당의 정책노선 결정, 주요 정책 인준, 최고지도부를 비롯한 주요 인사 선출 등이 이루어지는 최대 정치 이벤트이자 향후 5년(2026~30) 간의 정치외교와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2026년 1월 개최되는 제14차 전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음.<sup>30)</sup> KIEP

30) 정재완(2016), 「제12차 베트남 공산당 전당대회의 특징과 향후 정치-경제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6, No. 12, p.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